

노후 성격적응성향과 노인이 지각하는 기혼자녀와의 갈등관계 연구*

—장남부부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lation of the Later Personality Adjustment Types
and the Aged Perception of the Conflict with their Married Children

—Focus on the Relationships with their Eldest Sons and Wives—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주거학과

박사과정 金美慧

교수 劉永珠

Dept. of Child, Family, & Housing Studies, Kyunghee University

Doctoral Course : Mi Hye, Kim

Prof. : Young Ju, Yoo

〈목 차〉

I. 서론

II. 선행연구 고찰

III. 연구방법

IV. 결과 해석 및 논의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between the later personality adjustment types and the elderly perceived conflict with their married children. The subjects for this study are the aged over 60 years in Seoul, both having the eldest sons' couples and perceiving their own economics level as the middle-upper.

The results based on this are as followed :

1) The Active Integrated Coper is appeared in the higher educational level group, in the better health condition, in the 11-30 thousand won of personal expense, in the professional and management occupation, and in the more

* 본 연구는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vigorous for the social activity. The Failing Overcoper, the Dependent Passive Coper, and the Self-negating Undercoper is appeared in the female elder group, in the later group of the older age, in the lower educational level, in the worse health condition, in the group without spouse, in one without income, in the below 10 thousand won, in the less preparation for the later life.

2) The problems of emotion and view of values bring about the conflicts between them and theirs rather than the financial problem. when they are in the worse health condition, in the group without religion, in the group not cohabiting their eldest sons' couples, and in the group not well-prepared for their later life as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old recognized the seriousness of the conflict with their eldest sons' couples.

3) The lower the Active Integrated Coper is and the higher the Failing Overcoper is, the more intense the conflict between them and their eldest sons' couples is.

4) The t-test to examine the difference in the old's conflict with their eldest sons' couples among the later groups shows that it is in the less the Active Integrated Coper and in the more the Failing Overcoper that the conflict is more surfaced.

5) The educational level, the level of the later life preparation, the contact frequency with their daughters, the level of their social activity as the socio-demographic variables, and the Failing Overcoper as the later personality adjustment type answer for 22 percentage of the conflict.

I. 서론

1. 연구의 의의 및 목적

빠른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 추세와 더불어 노화로 인한 역할상실 혹은 변화, 신체 및 정신건강의 퇴화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통제의 곤란 등이 생겨나게 되고 이는 노인으로써 자연히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윤진, 1985). 이러한 노화의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노인과 친족의 상호작용이 '완충장치(buffer)'의 역할을 하게 되며, 친족 중에서도 가족 특히 기혼자녀가 전통적으로 노인의 정서적 부양 및 구체적인 도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제시되어 오고 있다(송현애·김순옥, 1988). 그러나 부모자녀관계처럼 일차적이고도 전면적인 인간관계에서는 친화의 감정과 대립의 감정이 필연적으로 공존 내지 동시에 발생하게 된다

(이기숙, 1985). 더군다나 한국사회와 같이 부계중심의 직계가족체계 하에서는 기혼자녀 가운데서도 장남부부에게 부양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관계로 인해 여러가지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 물론 최근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과거 전통사회에 비해, 장남부부와의 동거율은 감소하는 대신 장남이외의 기혼자녀들과의 동거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들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장남부부와의 동거율은 지속적으로 우위를 차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서병숙, 1988; 장선주·서병숙, 1990; 최정혜, 1992)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빚어지는 갈등상황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노화가 생물학적인 면에서 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 어떠한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장인협·최성재, 1989), 특히 개인적 자원인 노후의 성격특성변화로 인해 빚어지는 장남부부와의 갈등관계를 파악

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연구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동안에 이루어진 수많은 국내·외 연구들이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 노인의 생활만족도, 부양형태, 가족관계에서의 갈등 및 소외감·고독감 등에 관해 이루어져 왔지만 노인 개개인의 성격변화측면에서 바라본 시각은 그리 많지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가족내에서의 노부모-장남부부간의 갈등에 있어서 노인 개개인의 성격적 특성이 미치는 효과를 연구해 봄으로써 노인문제를 심리적인 측면에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대사회의 변화에 따라 실추된 노인의 지위와 역할상실에 대한 노인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노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가족관계에 관한 시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노인의 질적생활향상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시할 수 있음과 동시에 노인복지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있어 보다 실질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으리라고 본다.

2. 연구문제

- 〈연구문제 1〉 노후 성격적응성향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2〉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은 어느 정도이며,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3〉 노후 성격적응성향과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간의 관련성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노후 성격적응성향에 따라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가?
- 〈연구문제 5〉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의

1) 노인 : 장남부부를 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들을 일컫는다.

2) 노후 성격적응성향 : 노년기의 변화된 생활이나 상황에 대처하는 인성적 특성으로 조작 정의하며 Shan(1985)의 분류에 따라 적극적 통합성, 실패 과정성, 의존적 수동성, 자기 부정성의 네성향으로 구분한다.

3) 노인이 지각하는 갈등 :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상반된 가치나 태도 혹은 신념 등의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마찰로 조작적 정의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후 성격적응성향 관련 연구

1) 노년기 성격특성의 변화

각 개개인들의 유전적인 조건, 외부자극에 대한 해석, 문제해결 방법 등의 상이함이 개인의 독특한 성격을 형성하게 되는데(이영은, 1990) 한 개인의 성격 특성은 전생애를 통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새로운 역할과 경험을 하게 되고 새로운 성격형태를 얻게 되어 같은 상황에 처하더라도 연령 단계에 따라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있다(윤진, 1985).

심리·사회적 성격발달이론을 발전시킨 Erickson(1963)은, 마지막 8단계인 노년기를 통해 자아통합감과 절망이라는 위기를 제시하였다. 자아통합감은 자신의 지나온 일생에 대해 그런대로 만족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온 의미있는 일생이었다는 느낌으로, 달성하지 못한 일보다 이룩한 일과 행운에 대해 감사하는 자세를 가질때 생기는 것인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심한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고 하였다. Robert Peck(1968)은 노년기의 성격발달을 자아분화(ego-

differentiation)대 직업역할몰두(work role preoccupation), 신체초월(body transcendence), 그리고 자아초월(ego transcendence)대 자아몰두(ego preoccupation)의 세가지로 보았다.

Havighurst(1972)는 노년기에는 생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발견하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현재 생활을 유지하려는데 초점을 둔다고 지적하였고, Hurlock(1980)은 노년기에는 생활관심이 다른사람들의 삶보다는 자신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성격특성은 노년기의 생활전반 및 심리적 적응과 깊이 관련되며 또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될 것이다.

2) 학자들에 따른 노후 성격적응성향 분류

(1) 샤나안(Shanan)의 분류

샤나안(Shanan, 1985)은 노인 각 개인을 조사하는데 있어 Q기법을 사용하여 82개 항목을 설정한 뒤 이를 요인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성격성향으로 구분하였다.

㉠ 적극적 통합성(The active integrated copier) : 이 성향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통합되어 있으며 매우 긍정적이고 겸손하다. 또한 은퇴에 대해 크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건강하고 안정되어 있고 자존감이 높을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다.

㉡ 실패과장성(The failing overcoper) :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매우 외로우며 자신의 성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고 화를 잘내며 인내심이 부족하다. 가족관계에서도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또한 원만치 못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 의존적 수동성(The dependent passive copier) : 의존적 수동성은 조심스럽지 못하고 부주의하며 어려운 문제에 부딪칠 경우 이를 극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회피함으로써 결국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는 사람들의 성향으로 의지력이 부족하다. 또한 지적 창조성과 상상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우며 감감도 없다.

㉣ 자기 부정성(The self-negating undercoper) : 이

성향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어 있으며, 모든 것에 자신감이 없다. 또한 자신을 부정하고, 매사에 주도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복종적이며, 말이 없는 편으로 항상 조심스러워 한다.

(2) 라이카드(Reichard)의 분류

라이카드(Reichard et al., 1962)는 은퇴한 남자 87명을 대상으로 은퇴후의 성격 및 적응성향을 조사하여 성격특성이 성공적인 적응을 예측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의 성격적응성향을 분류하였다.

㉠ 성숙성(The matured type) : 성숙성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매사에 신중하게 생각해서 말과 행동을 하려하고 은퇴후 변화된 자기자신을 현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나온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향의 노인들은 자아통합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 방어성(The armored type) : 이러한 특성이 강한 사람들은 늑어감에 대한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활동 및 기능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노년기의 수동적인 면과 무기력함을 액면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 계속적으로 활동함으로써 신체적 능력의 저하를 막고자 노력한다.

㉢ 은둔성(The rocking-chair type) : 은둔성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흔들의자에 앉아서 지낸다'라는 단어에서 내포하고 있듯이 한평생 사회적 활동과 책임에서 벗어나 조용히 사는 것을 오히려 더 행복스럽게 생각한다(윤진, 1985).

㉣ 분노성(The angry type) : 분노성의 성향을 지닌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인생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늑어버린 것에 매우 비통해 하며, 실패의 원인을 자신이 아닌 시대, 나라, 부모 형제, 자녀 등 다른 데로 돌림으로써 남을 질책하고 자신의 늑음에 대해 타협하지 않으려고 한다(김태현, 1994; 윤진, 1985).

㉤ 자학성(The self-haters type) : 이러한 성향의 사람들은 지나온 삶에 대하여 많은 후회의 감정이 있고 자신의 이런 불행과 실패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여긴다. 자학성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무가치하며 열등하다고 느끼고 있으므로, 의기소

침하고 우울증이 있다(김태현, 1994). 또한 자살 생각이나 기도를 끊임없이 하는 등 정신 건강상태가 매우 나쁘다(윤진, 1985).

노후 성격적응에 관해서는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Shanani, Reichard 등의 연구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중 Shanani의 적응성향이 가장 최근에 연구된 것으로서 기존의 분류 개념들을 포괄하고 있다고 사료되어 Shanani의 적응성향 분류를 본 연구에 적용시키게 되었다.

3. 노부모-기혼자녀간 갈등과 관련변인 연구

기혼자녀와의 갈등에 성별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연구들에 의하면 여자노인보다는 남자노인의 경우 노부모가 지각하는 기혼자녀와의 갈등이 높게 나타났다(최정혜, 1992)가 있는 반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연구결과(송대현·윤가현, 1989)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경향이다. 송대현·윤가현(1989)의 연구에 의하면 50대 후반에서 60대 중반까지의 조사대상자들이 60대 후반이상의 조사대상자들보다 기혼자녀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훨씬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단순히 연령이 낮을수록 갈등을 더 적게 지각한다기보다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노인들이 기혼자녀들로부터 기대를 덜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노부모가 지각하는 기혼자녀와의 갈등에 연령의 효과가 유의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최정혜, 1992)도 있어 일관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수준에 따른 영향력을 검증한 최정혜(1992)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성인자녀와의 갈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신일진·김태현(1991)의 연구에서는 노부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기혼자녀와의 갈등은 높아짐을 보여주었으나 노모의 경우 교육수준은 성인자녀와의 갈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연구(Johnson & Bursk, 1977; 신일진·김태현, 1991; 최정혜, 1992)를 통해서 노인의 건강상태는 성인자녀와의 갈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노년기에 종교는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된다(Harris & Cole, 1980). Moberg(1956, 1970)는 적극적인 종교활동이 노인생활의 높은 적응도와 유의하게 관련됨을 보고하였으며, 노인의 소외감을 연구한 박의연(1989)의 연구에서 또한 종교가 있는 노인들이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노인에 비해 소외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정혜(1992)의 연구에서는 노부모가 지각하는 기혼자녀와의 갈등에 배우자 유무 변인은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신일진·김태현(1991)의 연구에서는 노모의 경우 배우자가 없을시 자녀와의 갈등은 심화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기혼자녀와 동거상태일 때보다는 별거상태일 때 자녀와의 갈등이 적으며 오늘날 노부부는 가능한한 독립해서 살기를 원한다는 연구보고들(박재간, 1984; 이가옥, 1989; 김태현, 1991)이 있는 반면, 동거의 경우 별거일 때보다는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보고들(유영숙, 1985; 장선주, 1989; 최정혜, 1992)이 있다.

노인의 경제적 상황을 평가하는 척도는 크게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적인 만족감 두가지가 사용된다. 그 가운데서도 선행 연구들(Medley, 1976; Quinn, 1983)을 통해서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인 경제상태에 대한 관점이 더 중요한 작용을 함이 밝혀졌다(이철우, 1990; 최정혜, 1992; 백근영, 1994). Streib과 Schneider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은퇴전 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개인적, 사회적 자산으로 대체역할이 가능하므로 자연히 만족도가 높은 반면 육체노동에 종사했던 사람은 생활만족도가 낮다고 하였으며, Ida Simpson도 상층의 전문직 종사자가 생활만족도가 높음과 동시에 성공적 적응을 하였음을 보고하였다(Harris & Cole, 1980; 재인용). 노후생활준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이철우(1990)의 연구에 의하면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잘된 노인은 퇴직에 잘 적응하며 따라서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서병숙(1988)은 기혼 딸부부와 동거율이 과거에 비해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여자노인의 경우 딸부부와 동거하는 경우가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는 노인들이 딸과의 교류가 보다 원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Stoller, 1983;

장선주·서병숙, 1990).

한편, 박의연(1989)은 노인이 사회활동 참여도가 높을수록 소외감의 정도가 낮아졌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많은 연구들에서 사회적 활동정도와 관련하여 노후의 사회 심리적 적응 또는 생활만족도와 높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Chapman & Beaudet, 1983; Edwards & Klemmach, 1973; 김명자, 1982; 홍순혜, 1984; 김종숙, 1987; 김효심, 1994; 백근영, 1994).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이 지각하는 주관적 평가로써 경제수준을 중정도 이상이라고 지각하는 대상자들로 통제시켰으며, 또한 일반적으로 노인의 부양과 관련해서 노인의 경우 아들보다는 딸과 동거하는 것이 갈등이 더 적다는 연구결과들(장선주·서병숙, 1990; 송현애·김순옥, 1988; 윤가현·송대현, 1990)에 따라서 기혼자녀중 딸은 제외시키고 기혼장남을 둔 60세 이상의 남녀 노인 272명을 대상으로 표집(sampling)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 노인들의 일반적인 성격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측정도구

노인들의 노후 성격적응성향은 J. Shan(1985)의 척도를 일부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수정·보완한 23문항의 3점 Likert 척도로써 '그렇다, 아니다, 보통이다'로 나누어 '그렇다'에 3점, '아니다'에 1점, '보통이다'에 2점을 주었다. Shan의 노후 성격적응성향은 적극적 통합성, 실패 과장성, 의존적 수동성, 자기 부정성의 네 성향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외국문화에 맞게 설계된 Shan의 성격성향척도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부 수정·보완된 전체 23문항을 가지고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주요인분석(Principle Axis Factoring) 실시후 scree 검사를 통해

<표 1> 연구대상 노인들의 일반적 성격

N=272

변 인	구 분	빈 도(%)
성	남	159(58.5)
	여	113(41.5)
연 령	노년 초기(60 - 64세)	46(16.9)
	노년 중기(65 - 74세)	119(43.7)
	노년 후기(75세 이상)	107(39.3)
교 육 수 준	무 학	42(15.4)
	국 졸	101(37.1)
	중 졸	50(18.4)
	고 졸 대 졸	34(12.5) 45(16.5)
건 강 상 태	나쁨	73(26.8)
	보통	84(30.9)
	좋음	115(42.3)
종 교	천주교	25 (9.2)
	기독교	59(21.7)
	불 교	79(29.0)
	기 타 무 교	17 (6.2) 92(33.8)
배 우 자 상 태	유	153(56.3)
	무	119(43.7)
동 거 형 태	장남부부	112(41.9)
	장남외 아들부부	42(15.7)
	미혼자녀	29(10.9)
	배우자	50(18.7)
	혼 자 기 타	20 (7.5) 14 (5.2)
수 입 상 태	유	90(33.1)
	무	182(66.9)
용 돈 액 수	1 - 10만원	84(31.5)
	11 - 30만원	125(46.8)
	31만원 이상	58(21.7)
이 전 직 업 형 태	전문직	33(12.2)
	관리직	26 (9.6)
	사무직	38(14.1)
	판매직/서비스직	59(21.9)
	생산직	22 (8.1)
	기 타 가정주부	51(18.9) 41(15.2)
노 후 생활준비도	상	48(17.8)
	중	109(40.5)
	하	112(41.6)
딸과의 접촉정도	상	78(28.8)
	중 하	102(42.9) 58(24.4)
사회적 활동정도	상	65(24.1)
	중	114(42.2)
	하	91(33.7)

* 무응답의 빈도에 따라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직교회전(varimax)한 결과 부하량이 낮은 한 문항을 제외시켰으며, 요인부하치가 .30 이상인 총 22문항으로 이루어진 4개의 요인으로 노후 성격적응성향 내용이 구성되었다. 각각의 하위요인별로 제1요인은 「적극적 통합성」(Cronbach's α .70), 제2요인은 「실폐 과장성」(Cronbach's α .68), 제3요인은 「의존적 수동성」(Cronbach's α .66), 그리고 제4요인은 「자기 부정성」(Cronbach's α .65)에 해당된다. 이러한 네 요인 가운데 「의존적 수동성」에 반대되는 개념의 2문항(문항번호 : 15, 16)과 「자기 부정성」의 반대개념 2문항(문항

번호 : 21, 22)의 점수는 재부호화(recording)하였다.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의 갈등 척도는 최정혜(1992)에 의해 개발된 24문항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영역으로는 정서적 갈등영역(11문항), 가치관 갈등영역(7문항), 재정적 갈등영역(6문항)의 세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에 대한 반응양식을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 '매우 그렇다'에 4점을 주는 Likert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갈등수준이 높다(Cronbach α .90). 그 외에 노인들의 일반적인 배경 파악을 위한 14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 노후 성격적응성향의 요인분석

문항 내용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V	h ²
I. 적극적 통합성	1. 나는 일을 순서적으로 잘 처리한다.	0.6776	-0.0101	0.1118	-0.2163	.52
	2. 나는 근면하고 부지런하다.	0.5964	0.0589	-0.1048	-0.1908	.41
	3. 나는 사람들에게 공손하고 정중함.	0.5871	-0.2229	0.1833	0.2261	.48
	4. 일하는 것을 좋아하며, 헌신적으로 함	0.5844	-0.0382	-0.4122	0.1049	.52
	5. 나는 점잖고 성실하다.	0.4895	0.0115	0.1070	-0.0365	.25
	6. 일할때, 남보다 앞서고 싶은 욕구.	0.4744	0.0829	-0.1110	0.2733	.32
II. 실폐 과장성	7. 사람들이 내게 거리감을둘때, 좌절.	0.1623	0.6428	-0.1037	-0.0351	.45
	8. 어려움에 부딪치면 화가나고 좌절.	-0.1715	0.5792	0.1869	0.1977	.44
	9. 나는 돈에 많은 중요성을 둔다.	0.0007	0.5690	0.1430	-0.2365	.40
	10. 나는 좀 변덕스럽다.	-0.2065	0.4861	-0.4446	-0.1933	.51
	11.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줄때, 만족감.	0.1600	0.4482	0.0548	0.1263	.25
III. 의존적 수동성	12. 나는 현재 일어나는 일반 생각한다.	-0.0176	0.0407	0.5361	-0.1060	.30
	13. 가능한한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0.2524	-0.1688	0.5161	0.2110	.40
	14. 어려운 문제에 부딪치면, 회피함.	0.1087	0.2915	0.4496	0.1194	.31
	15. 나는 정부에서 하는 일에 관심 많음.	0.3453	-0.1042	-0.4711	0.3938	.51
	16. 나는 일반상식을 많이 알고 있다.	0.2620	-0.3560	-0.4832	0.1100	.44
IV. 자기 부정성	17. 나는 자녀들을 매우 소중하게 생각.	0.0831	-0.1098	0.1680	0.5400	.34
	18. 나는 보수적인 편이다.	0.0465	0.1078	0.0076	0.4371	.20
	19. 나는 모든것에 자신감이 없다.	-0.1076	-0.0116	0.0200	0.3541	.14
	20. 나는 친구를 쉽게 사귀지 못한다.	0.0292	-0.0100	-0.0235	0.3297	.11
	21. 나는 매사에 주도적이고 신뢰할만함	0.0577	-0.2508	-0.0594	-0.3511	.19
	22. 나는 약속을 잘 지킨다.	0.3416	0.0054	0.1826	-0.4467	.35
eigen 값		2.71	1.93	1.74	1.58	
설명변량(%)		12.78	11.38	8.34	7.87	
누적변량(%)		12.78	24.16	32.50	40.37	

※ 문항순서는 문항내용에 따라 재조정 하였음.

3. 연구절차

본조사 실시에 앞서 측정도구의 적절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1995년 8월 7일~12일까지의 기간을 통해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은 강남과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무작위 추출하였으며 70명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직접 면접조사 하였다.

이 설문지는 박사과정 이상의 가족학 전공자 3인에게 의뢰하여 내용 타당도(Content Validity)를 검증한 후 사용되었고, 예비조사 자료는 신뢰도를 검증하는데 사용되었다. 본조사는 4주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지역의 편중을 막기 위해 강남과 강북지역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표집하였다. 조사원들은 사전에 본 연구자에 의해 연구의 목적 및 설문지에 대한 유의사항, 면접방법 등을 훈련받은 경희대학교 아동·주거학과 2, 3학년생 7명과 함께 실시되었다.

IV. 결과 해석 및 논의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 성격적응성향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 성격적응성향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에 따라서는 적극적 통합성을 제외한 실패 과장성, 의존적 수동성, 자기 부정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실패 과장성($t=-4.47, P<.001$), 의존적 수동성($t=-4.88, P<.001$), 그리고 자기 부정성($t=-2.92, P<.01$)의 경우 남자노인에 비해 여자노인집단이 유의하게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여자노인의 경우에 실패 과장성과 의존적 수동성, 자기 부정성의 부정적 성격적응성향을 더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남자는 밖에서 일을 하고 여자는 안에서 집안일을 전담했었던 전통사회에서, 여성은 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악한 위치에 있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많은 제재를 받았기 때문에 활동범위는 극히 제한되었으며 이로 인해 생활방식은 당연히 수동적이고 의존적일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할 때 노후생활에 대한 적응 역시 남성에 비해 훨씬 수동

적이며 자신감이 감소된다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령에 따라서는 의존적 수동성의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F=3.16, P<.05$) 노년후기 집단(10.07 SD=2.49)일수록 의존적 수동성의 성격적응성향을 더 많이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백근영(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즉, 일반적으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노인들은 건강상태가 악화되며 경제적 능력이 더욱 감소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함으로써 자아통제력이 상실되거나 부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기 쉬운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성향을 많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교육수준에 따른 검증에서는 모든 적응성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즉,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적극적 통합성의 성격적응성향을 보이고 있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실패 과장성과 의존적 수동성, 자기 부정성의 부정적 적응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지위도 비교적 높을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생활만족도 또한 높으며,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덜 지각했다는 여러 연구결과들(맹희재, 1985; 김미옥, 1986; 박의연, 1989; 최정혜, 1992)을 통해서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은 노인일수록 노후생활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이며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반면, 교육수준이 낮은 노인들의 경우 적극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기보다는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보다 수동적이면서도 불안해 할 수 있다는 것을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건강상태에 따른 차이에서는 건강상태가 양호할수록 적극적 통합성($F=2.81, P<.05$)을 나타내고 있으며 좋지못할수록 실패 과장성($F=3.37, P<.05$)과 의존적 수동성($F=8.49, P<.001$)의 성격적응성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자기부정성의 경우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자기 부정성의 성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교유무에 따라서는 적극적 통합성을 비롯한 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후 성격적응성향의 각 집단간 차

N=272

독립변인		종속변인			적극적 통합성			실패 과장성			의존적 수동성			자기 부정성				
		구분	N	M	F(t)	D	M	F(t)	D	M	F(t)	D	M	F(t)	D			
성	남	159	16.1	1.71		9.6			9.1			10.8						
	여	113	15.6			10.8			-4.47***			10.5			-4.88***	11.6	-2.92**	
연령	노년초기	46	15.3	1.67		10.7	1.99		9.1	3.16*	AB	11.1	0.07					
	노년중기	119	16.0			10.0			10.1			11.1						
	노년후기	107	15.9			10.0			10.1			11.2						
교육수준	무학	42	16.0	3.42**	A	10.6	4.20**	A	10.9	11.68***	CD	11.7	4.32**	A				
	국졸	101	15.2			B			10.4			A			10.3	AB	11.3	A
	중졸	50	16.3			A			10.1			A			8.9	BC	11.2	A
	고졸	34	15.8			AB			10.5			A			9.7	D	11.5	A
	대졸	45	16.6			A			9.0			B			8.2		10.1	B
건강상태	나쁨	73	15.3	2.81*	AB	10.5	3.37*	AB	10.3	8.49***	A	11.5	1.91					
	보통	84	15.9			10.3			10.1			11.2						
	좋음	115	16.1			A			9.7			B			9.0	B	11.0	
종교유무	유	180	16.0	1.74		10.3	1.86		9.9	1.66		11.3	1.74					
	무	92	15.5			9.8			9.4			10.8						
배우자 상태	유	153	15.9	-0.32		9.9	2.04*		9.4	2.53*		11.0	0.91					
	무	119	15.8			10.4			10.1			11.3						
장남부부와 의 동거여부	유	112	16.2	1.84		10.2	0.26		10.2	3.09**		10.9	-1.90					
	무	160	15.6			10.1			9.3			11.3						
수입상태	유	90	15.6	-1.33		9.7	-2.15*		8.8	-4.66***		10.8	-1.92					
	무	182	16.0			10.3			10.1			11.3						
용돈액수	1-10만원	84	15.4	2.16		10.6	3.50*	AB	10.9	19.43***	B	11.7	6.30**	B				
	11-30만원	125	16.1			10.1			9.3			10.7						
	31만원이상	58	15.8			9.6			B			8.7			B	11.2	AB	
이전직업 형태	전문, 관리직	59	16.4	2.24*		10.0	-0.54		8.9	-2.98**		10.2	-3.87***					
	비전문직	211	15.7			10.2			9.9			11.4						
노후생활 준비도	상	48	16.2	1.09		10.4	2.22		9.0	2.85*	AB	10.9	0.35					
	중	109	15.9			10.4			9.7			11.2						
	하	112	15.6			9.8			9.9			A			11.2			
딸과의 접촉정도	상	78	16.3	2.67		10.5	2.55		9.6	1.32		11.1	0.04					
	중	102	15.7			9.8			9.4			11.1						
	하	58	15.4			9.8			10.0			11.0						
사회적 활동정도	상	65	16.5	2.91*	B	10.7	6.72**	A	9.5	4.02*	A	10.7	5.37**	B				
	중	114	15.6			10.4			10.1			11.0						
	하	91	15.7			B			9.5			B			9.2	B	11.7	A

※ 무응답의 빈도에 따라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 P<.05 ** P<.01 *** P<.001

패 과장성, 의존적 수동성, 자기 부정성 모두에서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연구(Moberg, 1956; Harris & Cole, 1980; 박미령, 1978; 김미옥, 1986; 박의연, 1989)를 통해서 밝혀진 종교가 노년기에 미치는 유의한 측면과는 다소 상이한 결과이다. 개개인의 인성특성이니 만큼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배우자 상태에 따른 차이검증 결과, 실패 과장성과 의존적 수동성에서는 집단간에 의미있는 차이($p < .05$)를 보이고 있지만 적극적 통합성과 자기 부정성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배우자가 있는 집단보다는 없는 노인집단의 경우에 실패 과장성($M=10.44$, $SD=2.21$)과 의존적 수동성($M=10.09$, $SD=2.23$)의 노후 성격적응성향을 나타냈다. Edwards & Klemmach(1973)는 기혼·독신·사별 노인의 집단별 연구에서 결혼상태에 있는 노인들이 혼자있는 노인들(독신·이혼·별거상태의 노인)보다, 그리고 혼자있는 노인들이 배우자를 사별한 노인들보다 사기가 높은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여러 이론적 근거들(김명자, 1982; 윤진, 1985)을 배경으로 볼 때, 배우자가 없는 노인의 경우 보다 타인에게 의존적이며 소극적이면서도 쉽게 좌절감을 경험하는 성격적응성향을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장남부부와 동거여부에 따라서는 장남부부와 동거하고 있는 노인들의 집단에 있어서 의존적 수동성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적극적 통합성, 실패 과장성, 자기 부정성의 노후 성격적응성향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가족구조가 장자중심의 직계가족제도이며, 또한 아직까지도 장남과의 동거를 희망하는 노인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최정혜, 1992) 은퇴나 혹은 배우자 사별 등으로 인해 노년기에 겪게 되는 경제적 곤란 및 빈곤을 염두에 둘 때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노인의 경우에 보다 의존적·수동적인 적응성향을 지닐 수 있다는 점은 가히 추측 가능한 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이점에 대하여는 별도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다시말해서 장남부부와 동거로 인하여 의존

적·수동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인지, 아니면 노인의 적응성향이 의존적이기 때문에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것인지에 관해서는 후속 연구에 의해 규명되어야 할 부분일 것이다.

수입상태에 따른 분석 결과는 실패 과장성과 의존적 수동성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에 실패 과장성($t=-2.15$, $P < .05$)과 의존적 수동성($t=-4.66$, $P < .001$)의 노후 성향을 나타내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년기에 있어서 경제적인 상태는 노인들의 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들에 근거할 때, 수입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에 실패 과장성과 의존적 수동성의 부정적 노후 성격 성향을 보인다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용돈액수에 따라서는 적극적 통합성($F=2.16$, n.s)을 제외한 세 적응성향에서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월 평균 용돈액수가 적을수록 실패 과장성, 의존적 수동성, 자기부정성의 부정적 노후적응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노인들의 이전직업형태 변인에 따라서는 실패 과장성을 제외한 적극적 통합성, 의존적 수동성, 자기 부정성의 노후 성격적응성향에서 집단간의 평균점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즉, 퇴직전 직업형태가 전문·관리직이었던 경우에 적극적 통합성을, 비전문직 집단이었던 경우에 의존적 수동성과 자기부정성의 성격적응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은 결과는 백근영(1994)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전문·관리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자아개념이 높고 은퇴후 직업역할의 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은 반면 비전문직에 종사했던 사람들은 은퇴후 역할상실을 대체할 수 있는 인적·비인적 자원들이 빈약하기 때문에 적극적이기보다는 소극적으로 노후생활에 적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노후생활준비도에 따른 집단간의 차이 검증 결과, 의존적 수동성에 있어서만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F=2.85$, $P < .05$). 즉, 노후생활준비가 안되었는 노인들일수록 의존적 수동성의 성격적응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잘 되 있을수록 노년

기에 적응을 잘해 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는 이철우(1990)의 연구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노후 생활준비가 안되었는 노인일수록 가족들에게 더욱 의존하게 된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사료된다. 딸과의 접촉 정도에 따라서는 모든 집단의 평균간 점수차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딸과의 접촉빈도 자체로 이해하기 보다는 부모-자녀간의 관계상의 문제로 인식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즉, 부모-자녀간의 친밀감이나 상호지원, 애착 정도에 따라 영향력은 달라질 것이다. 노인의 사회적 활동 정도에 따라서는 모든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즉 사회적 활동 정도가 높은 노인들일수록 적극적 통합성($F=2.91, P<.05$), 실패 과장성($F=6.72, P<.01$)을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적 활동 정도가 낮은 노인들일수록 의존적 수동성($F=4.02, P<.05$)과 자기부정성($F=5.37, P<.01$)의 노후 성격적응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실패 과장성은 자존감이 낮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불안정하여 변덕스러운 면이 강하며, 대인관계에서나 혹은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쉽게 좌절감을 경험할 수 있는 유형으로서 자아정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의 삶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이며 성실한 자세로 임하기보다는 타인이나 환경을 통해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음을 감안할 때, 더욱더 활발하고 과도한 사회적 활동수준을 보일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장남부부와 의 갈등

1) 각 영역별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 의 갈등 정도

<표 4>에 제시된 바와같이 갈등의 각 영역별로 장남부부와 의 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전체 평균점수 1.90($SD=0.65$)으로 총점 4에 대해 다소 낮은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영역별 평균차가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정서적 갈등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가치관 갈등, 재정적 갈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기존 연구결과들

(Fisher, 1989; Talbott, 1990; 김영모, 1990; 최정혜, 1992)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표 4> 장남부부와 의 갈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N=272		
갈등영역	평균	표준편차
정서적 갈등	1.99	.75
가치관 갈등	1.93	.75
재정적 갈등	1.70	.64
전체	1.90	.65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노인의 장남부부와 의 갈등

<표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 의 갈등은 건강상태, 종교유무, 장남부부와 의 동거여부, 노후생활준비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즉,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경우,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노인의 경우, 장남부부와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안되었는 노인들의 경우에 장남부부와 의 관계에서 갈등을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에 따른 결과는 신일진·김태현(1991), 최정혜(1992)의 연구결과를 지지하고 있는 것이며, 노부모의 건강이 나빠지면 성인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애착과 친밀의 감정이 감소함을 보여주는 연구결과들(Mindel & Wright, 1982; Baruch & Barnett, 1983)과도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종교유무 변수에 따른 결과는 종교가 있는 노인들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소외정도가 더 낮았고(박미령, 1978; 김미옥, 1986; 박의연, 1989), 종교적인 활동에 많이 참여하는 노인들이 생활만족도가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Moberg, D. O., 1956)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노부모-기혼자녀와의 갈등에 종교유무에 따른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최정혜(1992)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장남부부와 의 동거여부 검증결과는 동거한 경우에 별거할 때보다는 갈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유영숙(1985), 장선주(1989), 최정혜(1992)의 결과들

〈표 5〉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장남부부의 갈등에 대한 영향변인

N=272

변 인	구 분	N	MEAN(SD)	F(t)	Duncan
성	남	156	45.6(15.2)	0.58	
	여	106	44.5(15.6)		
연 령	노년초기	41	46.0(13.2)	0.59	
	노년중기	114	44.0(15.5)		
	노년후기	107	46.1(16.0)		
교 육 수 준	무 학	42	45.2(19.2)	0.34	
	국 졸	93	45.2(14.7)		
	중 졸	49	43.3(14.5)		
	고 졸	34	45.2(11.9)		
	대 졸	44	47.1(16.4)		
건 강 상 태	나쁨	69	48.0(15.9)	4.44*	A
	보통	81	47.2(15.5)		A
	좋음	112	42.0(14.4)		B
종 교 유 무	유	176	43.7(15.3)	-2.33*	
	무	86	48.3(15.1)		
배 우 자 상 태	유	148	45.0(13.8)	0.27	
	무	114	45.5(17.2)		
장남부부의 동거형태	유	112	42.6(14.5)	-2.41*	
	무	150	47.1(15.7)		
수 입 상 태	유	86	45.1(15.9)	-0.06	
	무	176	45.2(15.1)		
용 돈 액 수	1-10만원	80	46.0(16.2)	0.45	
	11-30만원	119	45.6(15.0)		
	31만원이상	58	43.6(15.3)		
이전직업형태	전문,관리직	57	47.9(15.6)	1.47	
	비전문직	203	44.5(15.3)		
노후생활준비도	상	48	35.8(10.4)	12.16***	B
	중	102	46.8(16.2)		A
	하	109	48.0(15.1)		A
딸과의 접촉정도	상	77	42.4(13.7)	1.72	
	중	100	45.8(15.3)		
	하	51	47.0(17.8)		
사회적 활동정도	상	63	43.3(14.2)	1.25	
	중	109	44.9(15.3)		
	하	88	47.2(16.3)		

※ 무응답의 빈도에 따라 전체 사례수는 차이가 있음.

* P < .05 ** P < .01

을 지지하고 있는 한편 동거보다는 별거상태일 때 자녀와의 갈등이 적다는 연구결과들(박재간, 1984, 1985; 이가옥, 1989; 김태현, 1990)과는 상반된다. 우리사회에서는 아직까지도 장남부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장남부부와의 동거를 당연시하며(장선주·서병숙, 1990) 노부모들은 장남부부와의 동거를 희망, 기대(최정혜, 1992)하고 있는 가치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가히 짐작 할 수 있는 것이다. 노후생활준비도에 따른 차이 검증 결과는 노후생활준비가 잘 되 있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다는 이철우(1990)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노후생활준비도가 낮을수록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지각하는 갈등정도가 높다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부모-자녀간의 혈연으로 이루어진 애정관계에서 비롯되기보다는 의무감을 강조하는 시부모-며느리간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성별, 연령, 교육수준, 배우자 상태, 수입상태, 용돈액수, 이전직업형태, 딸과의 접촉정도, 사회적 활동정도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이 발견되었다.

3. 노후 성격적응성향과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의 갈등 관계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후 성격적응성향 가운데 적극적 통합성(-.18)과 실패 과장성(.19)이 노인

〈표 6〉 노후 성격적응성향과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

N=262

변인	정서적 갈등	가치관 갈등	재정적 갈등	총 점
적극적 통합성	-0.16*	-0.16*	-0.17**	-0.18**
실패 과장성	0.17**	0.18**	0.14*	0.19**
의존적 수동성	-0.03	-0.09	0.03	-0.04
자기 부정성	-0.02	0.01	-0.04	-0.02

* P<.05 ** P<.01

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적극적 통합성의 적응성향이 강할수록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덜 지각하고 있고, 실패 과장형의 성향이 강할수록 장남부부와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만족도와 갈등이 상호 부적상관임을 감안할 때, 적극적 통합성을 나타낼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높았으며 실패 과장성과 자기 부정성의 성향이 강할수록 노인들의 생활만족도는 낮았다는 이영은(199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노년기 이후의 생활에 보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성향이 강할수록 자존감이 높아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보다 원만하여 갈등이 낮을 수 있으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정하고, 쉽게 좌절감을 느끼는 실패 과장성의 성향이 강할수록 자존감 또한 낮아 자녀와의 관계에서 겪는 갈등정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4. 노후 성격적응성향에 따라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

노후 성격적응성향에 따라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분석결과가 〈표 7〉에 나타나 있다. 결과에 의하면 적극적 통합성과 실패 과장성의 경우 상·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한편, 의존적 수동성과 자기 부정성의 노후 성격적응성향의 경우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적극적 통합성의 성향이 보다 강한 상 집단의 평균점수는 42.41(SD=15.60)로 하 집단의 평균점수 49.68(SD=15.81)에 비해 낮게 나타나 적극적 성향이 보다 낮은 하 집단의 경우 노인들은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지각하고 있었다. 반면, 실패 과장성의 경우 하 집단에 비해 상 집단의 평균점수(M=51.21, SD=16.48)가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t=3.00, P<.01) 실패 과장성의 적응성향이 보다 강한 상 집단에서 노인들은 장남부부와의 갈등을 더욱 지각하고 있음을 알

〈표 7〉 노후 성격적응성향에 따른 장남부부와의 갈등에 대한 집단간 차

(t-test)

변 인	장남부부와의 갈등				
	구 분	사 례 수	평 균	표 준 편 차	t 값
적극적 통합성	상	93	42.41	15.60	-2.95**
	하	71	49.68	15.81	
실패 과장성	상	73	51.21	16.48	3.00**
	하	58	43.05	14.02	
의존적 수동성	상	62	45.21	14.36	-0.48 (n.s)
	하	57	46.51	15.38	
자기 부정성	상	64	42.94	14.13	-1.89 (n.s)
	하	53	48.13	15.62	

n.s.=not significant

** P<.01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앞서 살펴 본 상관분석 결과 적극적 통합성의 성향이 강할수록 노인들은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덜 지각했고, 실패 과장성의 성향이 강할수록 장남부부와의 갈등을 높게 지각하고 있었음을 지지하고 있는 것이다.

5.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에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의 상관계수를 구한 후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나타났다. 중다회귀분석에 앞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변수들간의 상호 상관 계수가 그리 높지 않아 회귀식의 변인으로 넣기에 적합하다고 보여졌다. 회귀모형에 포함시키는 독립 변수들은 연속변수이면서 종속변수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변수들을 단계적 선택방법(stepwise)을 통해 선택하였다. 이들 변수들의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도 없어 회귀모형 설정에 무리가 없었다.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은 교육수준, 노후생활준비도, 딸과의 접촉정도, 사회적 활

〈표 8〉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변 인	b	β	vif
연 령	-0.02	-0.01	1.20
교육수준	2.48	0.21**	1.63
용돈액수	0.01	0.03	1.29
노후생활준비도	-2.67	-0.25***	1.27
딸과의 접촉정도	-1.59	-0.18**	1.18
사회적 활동정도	-0.48	-0.14*	1.28
적극적 통합성	-0.79	-0.12	1.15
실패 과장성	1.99	0.28***	1.21
의존적 수동성	-0.62	-0.09	1.20
자기 부정성	-0.24	-0.03	1.06
intercept		49.185	
R ²		0.2228***	

* P < .05 ** P < .01 *** P < .001

동정도 그리고 노후 성격적응성향중 실패 과장성의 독립변인들에 의해 약 22%의 설명력을 지니고 있다.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들은 실패 과장성과 노후생활준비도였으며(P < .001), 다음으로 교육수준, 딸과의 접촉정도(P < .01), 사회적 활동정도(P < .05)가 장남부부와의

갈등을 설명하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즉, 실패 과장성의 성향이 강할수록,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딸과의 접촉정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활동정도가 낮을수록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점수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장남부부를 두고 있으며, 경제수준이 중 정도 이상이라고 지각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 272명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의 성격적응성향과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간에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질문지 방법을 통해 조사되었다. 자료분석은 빈도 및 백분율, 평균, 요인분석, t검증,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및 Duncan의 사후검증, 적률상관계수, 그리고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적극적 통합성(The active integrated copier)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월평균 용돈액수가 11-3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관리직에 종사했었던 경우, 사회적 활동정도가 높은 집단에서 적극적 통합성의 적응성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실패 과장성(The failing overcoper)은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수입이 없는 집단에서, 월평균 용돈액수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사회적 활동정도가 높은 경우에 실패 과장성의 적응성향을 보이고 있었다. 의존적 수동성(The dependent passive copier)은 여자노인의 경우, 연령이 높은 노년후기 집단에서,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배우자가 없는 경우, 장남부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월평균 용돈액수가 1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비전문직에 종사했을 경우, 노후생활준비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활동정도가 중간수준인 집단에서 의존적 수동성의 적응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부정성(The self-negating undercoper)은 여자노인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평균 용돈액수가 10만원 이하

인 경우, 비전문직에 종사했을 경우, 사회적 활동정도가 낮을수록 자기 부정성의 적응 특성을 나타내었다.

둘째, 노인들은 정서적 갈등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있었으며(M=1.99, SD=.75) 다음으로 가치관 갈등(M=1.93, SD=.75), 재정적 갈등(M=1.70, SD=.64)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적 갈등에 비해 정서적, 가치관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서는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종교가 없는 경우, 장남부부와 동거하고 있지 않는 경우, 노후생활준비도가 낮을수록 노인들은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더욱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적극적 통합성은 갈등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고 실패 과장성은 갈등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적극적 통합성의 적응성향이 강할수록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덜 지각하였으며, 실패 과장성의 적응성향을 나타낼수록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적극적 통합성과 실패 과장성의 경우 상·하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적극적 통합성의 성향이 낮은 하집단과 실패 과장성의 성향이 강한 상집단에서 노인들은 장남부부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지각하고 있었다. 즉, 적극적 통합성의 성향이 약할수록, 실패 과장성의 성향이 강할수록 노인들은 장남부부와의 갈등을 많이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은 교육수준, 노후생활준비도, 딸과의 접촉정도, 사회적 활동정도, 그리고 성격적응성향 중 실패 과장성의 변인들에 의해 약 22%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패 과장성의 성향이 강할수록,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가 안 되었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딸과의 접촉정도가 낮을수록, 사회적 활동정도가 낮을수록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점수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노후 성격적응성향은 노인이 지각하는 장남부부와의 갈등과 상호 관련되며, 그 중 실패 과장성을 비롯한 노후생활

준비도, 교육수준, 딸과의 접촉정도, 사회적 활동정도는 장남부부와와의 갈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된 노후 성격적용성향 척도는 국내에서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데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 조사대상자들을 서울시에 거주하는 남녀노인들로 한정시켰을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시 면접방법을 주로 사용했기 때문에 조사자들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을 우려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화를 생물학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함으로써 노인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노후 성격변화 특성으로 인해 빚어지는 자녀와의 갈등을 파악해 봄으로써 노인을 보다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될 노인 연구의 방향설정과 시기에 보탬이 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노후의 성격적용 및 성격변화는 일시적이고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기보다는 전 생애를 통한 평생발달적 측면에서 연계됨을 인식할 때, 보다 심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한국사회의 문화에 맞도록 제작된 척도의 개발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외국척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화적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척도의 타당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시대의 변화로 인해 젊은층과 노년층간의 의식구조의 격차는 한층더 심해지고 있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가 자녀들로부터 자립할 수 있는 건강한 인성을 형성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노년기로 인한 노후의 성격변화나 신체변화를 건강하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한 노후생활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예방차원에서의 노인교육프로그램들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김명자(1982).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0(3), 45-54.
- 2) 김미옥(1986). 노인의 소외감과 신체적 노화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김영모(1991). 『한국 노인복지 정책연구』. 서울 : 한국 복지 정책연구소.
- 4) 김종숙(1987). 한국노인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5) 김태현(1991). 고령화 사회와 가족의 갈등. 『사회복지』, 가을호, 147-165.
- 6)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7) 김효심(1994). 경제상태, 사회적 활동정도, 사회적 지원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
- 8) 맹희재(1985). 재가노인의 고독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9) 박미령(1978). 가족내 노인의 역할과 소외감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 박의연(1989). 노인의 소외감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 연구—서울시 주거 노인들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1) 박재간(1984). 노후보장과 사적부양기능. 『한국노년학』 제4집.
- 12) 백근영(1994). 은퇴한 남자노인의 성격적용 특성에 따른 노후적응도.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3) 서병숙(1988). 노후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 및 가족의 교류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14) 송대현·윤가현(1989). 노년기의 고독감 : I. 한국노인이 느끼는 고독의 특성. 『한국노년학회지』 9, 64-78.
- 15) 송현애·김순옥(1988).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모-성인자녀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6(2), 83-101.
- 16) 신일진·김태현(1991).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의사소통 유형과 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1), 27-44.
- 17) 유영숙(1985). 자녀와의 동·별거에 따른 노인문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윤가현·송대현(1990). 노년기의 고독감 : III. ‘자녀와의 관계에서 파생된 고독감 척도’의 타당도 연구. 『현대사회과학연구』 1, 59-71.
- 19) 윤진(1985). 『성인·노인 심리학』. 서울 : 중앙

- 적성출판사.
- 20) 이가옥(1989). 가족구조의 변화와 노인부양문제 : 노인복지정책의 방향설정을 위한 세미나. 한국 인구보건연구소.
 - 21) 이기숙(1985). 한국가정의 고부갈등의 발생원에 대한 요인분석.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2) 이영은(1990). 노인의 성격 유형과 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3) 이철우(1990). 정년퇴직노인들의 퍼스낼리티와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4) 장선주(1989). 노부모와 성인자녀간의 생활감정 및 교류.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5) 장선주 · 서병숙(1990). 노부모와 기혼자녀간의 생활교류연구-아들동거 노인과 딸동거 노인과 의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28(3), 171-186.
 - 26) 장인협 · 최성재(1989). 노인복지학.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27)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8) 홍순혜(1984). 활동이론에 따른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9) Baruch, G. & Barnett, R. C.(1983). Adult daughters' relationships with their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601-606.
 - 30) Chapman, N. I. & Beaudet, M.(1983). Environmental predictor of well-being for at-risk older adult in midsized city. *Journal of Gerontology*, 38, 237-244.
 - 31) Eric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 Norton.
 - 32) Edwards, J. N. & Klemmach, D. L.(1973).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 a reexamination. *Journal of Gerontology*, 28, 497-502.
 - 33) Fisher, C. B., Reid, J. D., & Melendez. M. (1989). Conflict in families and friendships of later life. *Family Relations*, 38, 83-89.
 - 34) Harriss, D.K. & Cole, W.E.(1980). *Sociology of Aging*. Houghton Mifflin Co.
 - 35) Havighurst, R. J.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New York : David McKay.
 - 36) Hurlock, E. (1980).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 McGraw-Hill.
 - 37) Johnson, E.S. & Bursk, B.J.(1979).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 and their adult children In Phelan GK*. Family Burgess Publishing Co.
 - 38) Medley, M. L.(1976).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persons sixty-five years and older : A causal model. *Journal of Gerontology*, 31(4), 448-454.
 - 39) Mindel, C. H. & Wright, R.(1982). Satisfaction in multigenerational households. *Journal of Gerontology*, 37.
 - 40) Moberg, David O.(1956). Religious activities and personal adjustment in old ag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3, 261-267.
 - 41) Quinn, W.H.(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42) Reichard et. al. (1962). *Aging and Personality*. New York : Wiley Publishing.
 - 43) Ruch, F. (1944). *Psychology and Life*. Scott, Foresman & Co., E. M.
 - 44) Shanani, J.(1985). *Personality types and culture in later adulthood. John A. Meachan(ed)*. New York : Karger.
 - 45) Stoller, E.(1983). Parental caregiving by adul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 46) Talbott, M. M.(1990). The negative side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lder widows and their adult children : The mothers' perspective. *The Gerontologist*, 3(5), 595-603.